

[주제발표 1] '유아중심' 과 누리과정에 대한 사유(思惟)

- 김 영 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대상을 두루 생각하고 궁리하고자 사유(思惟)라는 제목을 붙였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점에서 유아교육보육의 오랜 화두이며 당연히 되어온 '유아중심'을 유아중심과 유아교육과정, 유아중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역사적 흐름, 누리과정에 대한 반론적 질문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유아중심과 유아교육과정

유아중심이란 무엇인가? 아동중심교육(여기서는 유아중심교육과 동의어로 사용함)에 대한 역사적 시작과 철학적 해석은 차이가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에도 Aristoteles (BC384-322)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행복한 삶이며 최고의 선이라고 한 바 있으며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개개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극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시민 전체를 훈련의 과정 안에 넣어 월계관의 승리가 최고의 성취였던 스파르타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스 교육 파이데이아(Paideia)가 어린이(pais)라는 뜻에서 나온 것임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근대의 Comenius (1562-1670)는 실물을 통한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였고 Locke (1632-1704)는 인식이나 관념은 주어지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외적 경험으로서의 감각과 내적 경험으로서의 내성으로 얻어지므로 경험을 통해 구성해 나간다는 인간오성론을 강조한 바 있다. 18세기 Rousseau의 자연주의 역시 감각 훈련 및 경험, 활동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고 아동의 자연성 발견을 주장하며 아동중심 교육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뒤 Frobel

(1782-1852)은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활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충동을 지닌 유아에게 신성을 발현시키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놀이이고 놀이를 통해 유아는 행복감을 느끼고 전인적 조화를 이루며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Frobel의 교육사상이 형이상학적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아동중심 교육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강조한 Hall, Gesell의 성숙주의로 연계되고 아동 중심 교육의 대표적 학자로 불리는 Dewey의 진보주의에 의해 흥미 중심 교육과정, 활동중심교육과정으로 발전되었다.

낭만주의, 진보주의를 거쳐 흥미, 주도성, 자유를 교육과정 구성의 핵심에 놓는 활동중심유아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충동이나 흥미에 기초한 자유로운 놀이나 창의적 표현활동을 중요시하게 되었다(양옥승, 2005). 교육은 자연적 경험이고 경험의 계속적 개조이며 성장이라고 보며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Dewey의 진보주의 교육은 Piaget, Vygotsky의 발생학적 인식론으로 연계되었다.

Dewey는 ‘학습의 질과 양 모두를 결정하는 것은 교과 내용이 아니라 아동’이라 말하며 학교에서 생기가 없고,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아동의 삶과 경험이 교육과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의 학습과 성취는 유동적인 것이며, 매시간 변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내용은 아동의 경험 바깥에서 이미 굳어지고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현재 가진 사고방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실행해야 되므로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일상중심의 경험적 교육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중심교육은 형식적이고 언어 중심적이었던 전통 교육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아동 중심 교육 사상에 따르면, 교육은 아동의 흥미나 개성, 적성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 내용보다 아동 자신을 더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과가 아니라 아동 자신이기 때문이다. 교육적 관심의 초점은 권위적 내용으로부터 아동의 본성으로, 교육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교사 활동에서부터 아동의 활동으로, 그리고 교육 방법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주입에서 내면으로부터의

계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철학의 변화는 대단한 전환으로서,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까지 일컬어진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교육학대백과사전 제 2권’, 1800).

유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유능한 존재인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독특성을 인정하며 요구와 자율성을 허용함이다. 따라서 유아존중 및 자발성 인정은 방입과는 차이가 있으며 유아기의 발달적 힘을 신뢰하고 특성을 고려하며 유아 본성에 대한 이해 및 자발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아중심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이다.

교육의 역사를 보면 인간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철학과 사조의 흐름들이 만나 논의하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면서 시대의 굴곡을 이어왔으나 유아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주어지는 유아중심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유아중심교육과정은 유아의 자발성이 존중되고 유아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으로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중재가 중요시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성공여부는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기초하여 유아에게 자발성, 주도성과 활동선택의 기회를 되도록 많이 열어 주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유아중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역사적 흐름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1997-2008)이 진행될 때 2007년 여성가족부령으로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2008-2011)이 고시되고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되어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되었다.

1969년(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생활중심, 경험중심, 흥미중심교육을 강조하였고 1979년(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인발달을 강조하여 인지발달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발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981년(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인발달에 역점을 두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조하였으며 1987(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언어, 인지발달을 강조한 경향이 있다. 1992년(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생활교육, 아동중심교육, 놀이중심교육에 중점을 두고 발달영역과 생활경험을 통합하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건강, 사회, 표현이 언어, 탐구 보다 우선순위에 놓았다. 1998년(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취지하에 기본생활습관 중시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명시하였으며 개정 2007 교육과정에 이어 오늘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르고 있다. 교육과정이 생활중심, 아동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을 표방했던 간에 유아의 흥미, 활동중심, 경험중심, 능동적 학습, 개방식 질문 등의 유아중심의 핵심과 다르지 않다.

1차~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아중심의 내용들은 여러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다. 1차 교육과정(1969)에서는 ‘어린이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환경을 주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즐거운 가운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몸에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유치원 교육의 필요성).’고 명시되어 있으며 2차 교육과정(1979)에서는 ‘획일화된 시간 계획에 의한 학습 활동의 운영을 지양하고 유아 자신의 흥미, 관심, 욕구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의 학습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지도상의 유의점).’로 제시하고 있다. 3차 교육과정(1981)에는 ‘하루의 교육 시간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사회의 특성, 아동의 발달 수준, 흥미, 기후, 계절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편제와 시간).’, 4차 교육과정(1987)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유아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지속시켜, 상상력, 창의력, 탐구력 및 문제 해결력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지도).’는 내용이 있다. 5차 교육과정(1992)에서는 ‘능동적인 학습을 위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

자료를 활용하고(~중략) 유아의 의견, 의문, 질문 등을 수용하고, 개방적 질문이나 긍정적 언어표현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한다(방법).’고 명시되어 있으며 6차 교육과정(1998)에서는 ‘교육 활동은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운영).’와 ‘교육 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한다(교수학습 방법).’로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도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 한다(교수학습 방법).’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에는 ‘유아중심’의 방향에서 구성방향,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구성방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해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자신만의 독특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개성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성장에 기초한 자·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5개 영역에 걸쳐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편성에서는 ‘만 3, 4, 5세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보육의 내용과 시간을 조절하며, 신체활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시간 포함)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친사회적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하며 실외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며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연령별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교육·보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및 실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보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독특

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며 ‘개별 유아의 특성이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집단 구성이나 운영 형태 등을 다양하게 편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영에서 ‘일일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유아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고 언급하며 ‘유아가 전날 보였던 반응이나 당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흥미 영역을 실내·외에 구성하여 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발표, 토의, 게임, 관찰, 실험, 조사, 현장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여 유아의 학습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며 ‘교사는 생활주제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를 준비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활동 주제에 몰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유아가 보이는 관심과 흥미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유아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이를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는 발달 특성상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한다.’라고 제시하며 ‘유아의 수많은 일상적 경험을 학습 상황으로 이끄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유아의 반응과 흥미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감으로써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

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노력, 학습 속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 대집단 등으로 집단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한다.’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넷째, 누리과정 운영평가에서는 ‘유아는 독특한 개인으로,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간의 차이가 있고 기질, 학습 속도,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경험, 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아 간에 서로 다르다. 누리과정에서 근거하여 교육 및 보육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개인차나 경험 및 능력차를 반영하여야 된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고 제시하며 ‘누리과정에 근거한 교육·보육 계획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에 부합하며, 계획된 활동에 적합한 환경 및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또한 ‘계획안과 실시된 교육·보육일지를 비교 분석하여 유아의 흥미와 요구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누리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며, 실행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은 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이끌고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평가에서는 ‘유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개별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평가를 통해 파악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를 부모에게 알려서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보육 내용을 계획하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하며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유아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Ⅲ. 누리과정에 대한 반론적 질문

현재의 누리과정은 사실로서의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매우 험란한 여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이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연차적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사실상 의무교육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출발선 상의 공정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동안 누리발전 포럼 등을 통하여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아중심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입장에 대하여 몇가지 반론적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1. 누리과정의 구성 및 내용

가. 누리과정이 유아중심이 아니며 지식을 강조하여 유아의 자발적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살려주지 못하는 방식의 구성인가?

Dewey의 아동중심교육의 핵은 아동존중이라는 원칙하에 교과가 아닌 아동자신의 생활이었다. 생활이 교과의 중심을 강조한 것이지 교과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흥미는 잠재력이 성장한다는 증거이며 활동의 중심이지만 활동의 방향은 지식의 체계를 습득해 간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에게 관찰자, 안내자, 제안자, 중재자, 의사소통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이란 또한 그리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지식에는 개념적 지식도 있고 절차적 지식도 있다. 개념적 지식은 관계성이 풍부한 지식이며 사전에 학습한 것과 새로운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절차적 지식은 규칙, 절차, 공식 등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이며 단계적으로 이미 처방된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 두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이다. 유아의 개별특성이나 경험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 지식의 기반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며 단순히 지식강조 여부로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지나친 경쟁이 유아를 병들게 하는 것은 지당하나 유능성이나 수월성, 경쟁 없이 자기향상의

기반을 놓도록 인내하고 동기화하지 않는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을 길러 내는가? 아동중심을 잘못 이해하여 읽지 못하는 아동의 심각성이 대두된 미국의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누리과정에는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유아중심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오히려 유아중심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현재 누리과정 지도서의 내용이 매우 방만하고 계열성으로 보아 초등 학교 저학년의 교육내용 보다 우위에 있는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내용이 비대해지고 초등보다 어려운 개념인 것이 더러 있어서 누리발전포럼 및 연구들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김은영, 강은진, 염혜경, 2005; 김영옥, 2012; 박창현, 양미선, 2017;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또한 누리과정의 전반적 내용 축소와 용어의 보완도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만 중복되거나 비대해진 양을 줄이고 보완하면 될 것이다. 개념이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매우 의미가 달라진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한다는 내용은 성인이 되어도 어려운 개념이지만 유아가 유아의 수준과 상황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을 다루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초등학교에서는 나의 몸과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고 있다. 감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나 수고하신 분들의 고생하거나 감사한 감정을 다루면 되는 것이지 농민의 피와 땀이 서린 슬픔이나 연민 등의 감정까지 명시 또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국가수준교육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도 초등수학 수준의 개념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물을 가지고 세어보고 가르고 모으고 더하고 빼는 실생활과 연결시켜 경험하는 것이다. 다만 적용이나 운영과정에 그러한 깊이 있는 감정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다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고급수준의 내용이 유아에 의해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용 지침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 정선이 필요하

다. 누리과정 세부 활동내용 중 연령별 세분화가 어려운 부분은 근접 연령 간에 공통 내용으로 제시하거나 좀 더 발달에 적합한 연령에 제시해 줌으로써 내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양도 정리되고 축소될 것이다.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2016)에서 제시된 ‘누리과정의 슬림화, 지역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의 강조’와 같은 맥락이다. 초등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자연탐구영역’의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중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사회관계영역’의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중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등 소위 상위개념이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누리과정 해설서의 활동 안내나 지도서의 예시 활동 중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너무 넓게 또는 깊게 다루는 경우 유아의 발달에 알맞은 수준과 범위를 다루는 활동으로 수정·보완해가면 될 것이다.

다. 누리과정의 5개영역 내용범주와 내용만 남기고 세부내용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한가? 동화, 사물중심의 주제로 전환해야 하는가?

세부내용이란 내용범주,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개념을 자세히 풀어 놓은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교과목 단위처럼 모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계획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영역의 5개 영역이 1992년부터 20년간 지속되어왔고 유지에 대한 논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영역 또한 8년간 현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5개영역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되 세부 내용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유연성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범주-내용-세부내용’ 제시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에 관한 진술이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는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관계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라는 내용을 모든 연령에 공통으로 하기 보다는 약속과 규칙알기(3세), 자연탐구 영역의 물체와 물질 알아보는 3세에서는 친숙한 물체와 물질에 관심 갖기가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꽃, 숲 등의 친숙한 이름으로 주제를 바꾸었다고 가정할 때 동물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동물도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협동하는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먹이와 보살핌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물중심 주제를 도입하여도 유아들이 배워야 하는 핵심개념은 유아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나 협동의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하위 개념과 위계는 달라질 것이다. 누리과정이 수년간 진행되어 겨우 현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를 전혀 다른 틀과 형식의 주제로 변경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라. 자연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위에서 누리과정을 폐지하자는 일부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자연중심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바깥이라는 공간이 교실이외에 텃밭, 마을, 시장, 길거리, 공원 등 유아에게 유의미한 모든 공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안전이나 공식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한 장소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유아에게는 ‘사람’과 ‘자연’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숲에 대한 회귀본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유아가 자연을 체험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여러 장면을 최대한 자연화하고 자연을 섭렵하는 모습으로 회복하자는 것이지 문명을 모두 거부하고 자연에 묻혀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숲교육, 생태교육 안에 국가교육과정이 들어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몬테소리, 발도르프, 레지오에밀리아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이 안에도 국가교육과정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해서 국가교육과정을 ‘없애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표현에 무리가 있는 것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안에 숲, 몬테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원의 사정이나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강도를 접목할 수 있다.

2. 누리과정 지도서의 활용

가. 교사용지도서가 국정 교과서 역할을 하고 고시문보다 더 활용되면서 누리과정의 정체성과 성격이 모호해졌는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의 이름이며 법적으로 고시된 문서이다. 이러한 고시문의 내용을 해석하여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해놓은 것이 해설서이다. 또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과 연령별로 활동의 예시를 들어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지침서이다. 지도서는 고시문의 해설과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생활주제별로 가능한 활동(안)을 교수·학습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제시한 샘플이며 모델(안)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도서는 각 생활주제마다 수십명의 대학, 현장전문가들이 집필하였고 특히 만 3, 4세용은 유아교육·보육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3, 4, 5세 모두 현장적용 및 현장의 검토와 피드백을 거친 것이다. 고시문보다 더 활용된다고 지도서를 없애면 사실 월간지나 기타자료집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고시문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고 여력이 된다면 다양한 지도방법을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를 정부의 어느 수준의 기관에서(교육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일 것인가를 모색할 수도 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현재의 활동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기본이 되는 안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넓은 바다의 무한한 자원이라 할지라도 유아중심에 의한 교사의 자율적 선택과 계획이 노련한 교사에게는 ‘무궁무진’하지만 신입교사에게는 ‘망망대해’이기 때문이다.

나. 계획안을 작성하지 말아야 하는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는 길인가?

누리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 적정 시간, 적합한 자료를 구비·제공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계획은 수업과 상호작용에 대한 크고 작은 그림이며 계획안을 쓰지 않는 것과 상호작용 시간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사의 생애주기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경력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교안작성의 일반적 원리와 고려사항 등은 누구나 익혀야 하는 부분이다. 일안 작성 시 정리·정돈, 급·간식, 휴식 및 낮잠과 같은 활동은 유아의 상태와 일과 시간의 길이, 계절·날씨 등에 따라 소소하고 부분적 변화는 있으나 매일 포함되는 기본적 활동들이다. 교육경력과 관계없이 학기가 진행되면서 활동명만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예상되는 날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 일일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도 제안 된 바 있다. 연간, 월간, 주간, 일일안, 단위활동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원에서 재량으로 저경력 교사는 다소 자세히 쓰는 연습을, 경력교사는 좀 더 간소화하고 큰 흐름으로 계획하는 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계획의 유연성은 필요하나 무계획과 간단한 계획은 차이가 있다.

3. 활동안의 구조와 교사의 전문성

가. 교사용 지도서가 한 가지 정답처럼 획일화되어 교사들에게 강제되는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가?

누리과정 내용을 암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철저히 공부하기 위해 암기하는 일면이 있다. 사범고시준비생이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과 같다.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생활주제와 주제에 따른 내용은 모두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서에 제시된 순서 또한 학습의 순서가 아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과 수준에 맞게 수정,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고시문을 잘 알고 이해하는 정도도 차이가 많고 적용하여 통찰력을 갖는 것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요리순서도에 파를 5cm로 자르라고 한 것은 기본을 제시한 것이다. 노련한 요리사가 되면 아무도 cm 라는 길이에 매몰되지 않는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 방법 등을 계획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초년 교사 때 보이지 않던 것이 경력교사가 되어서는 보이게 되고 시야가 달라진다. 전문성이라는 것도 철저한 연습과 지속적인 탐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 없는 기술자’(John, Ruskin 1819-1900)가 되지 않으려면 치열한 연마와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고도의 통찰도 분석적 사고와 논리의 연습에 기인하며 그러한 내용을 통해 전체를 보게 되고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 활동안이 주제만 바뀌고 비슷한 구조의 발문 형태를 통해 교육과정이 획일화 되고 교사는 탈숙련화 되는가?

지도서의 상호작용형식이 교사가 묻고 유아가 대답하고 다시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의 구조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임부연, 2018)이 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형상화한 탐문과 추론, 회상하기와 유목화하기, 명명하기, 순서짓기 등을 강조하는 구조적 오류를 지적함은 좀 더 다양한 대화를 통해 생명력있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발문을 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발문은 연습과정이다. 발문구조가 비슷한 것은 그러한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다양한 발문 형태를 제시하고 물론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은 필요하다.

대화법은 대화하는 법이다. 대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산파술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처럼 사전에 정해진 주장에 맞추어 토론하는 Debate 같은 형식도 있으며 긍정대화법도 있고 감정코칭에서 강조하는 형식의 대화도 있다. 문답법의 주요소로는 비판적 질문과 적극적 경청을 꼽는다. 질문과 발문도 다르다. 물론 유아가 물을 수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있다. 그러나 지도서는 질문의 유형을 모델화한 것이다. 당연히 그대로 질문할 수도 없고, 예상대로 진행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형을 이해하고 연습함으로써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가능하다. 돈키호테와 햄릿을 이해하는 이유는 두 유형 중 하나를 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간의 특성과 균형을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다. 지도서가 교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유아의 개별특성을 저해하는가?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는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사용 지침서 등으로 현장의 교육자율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아교육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2017.12.27. 보도자료)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세한 지도와 안내 때문에 이길 저 길을 자유롭게 가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 길로만 가도록 했다면 그 강요가 잘못된 것이지 자세한 안내지도의 허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는 등고선 중심으로 산과 강을 중심으로 또는 특별한 공간에 의미를 두고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지도서는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디자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에 오채선(2018)도 같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그간 자율성을 중시 여겼던 유아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자율성이 중요시 여겨졌던 상황에서 수업자율성이나 교육과정 분권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나정, 조준오, 2016)도 재개념주의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같은 도화지도 누가 어떤 재료로 그리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듯이 누리과정도 교사와 유아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및 활동의 내용과 범위, 간격과 크기 역시 많은 부분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적어도 다루어야 할 개념이나 요소의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명확한 범위 설정과 안내는 필수적이다.

4. 누리과정 내용의 적용 및 운영

가.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의 분화가 내용지식이 되고 연령 간 구분이 모호하여 배움이 통합이라는 고유의 성질을 저해하고 있는가?

유아교육이 통합적으로 일어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통합은 비구조화 되고 비계획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교육적 의도나 의미 없이 얽혀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분리, 독립되어있는 것들을 상호관련 짓고 하나의 의미 있는 세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시도이다. 물론 동작은 춤과 같이 유쾌하고 총체적인 움직임이며 미술활동도 심미안을 기르고 아름다움을 온 몸으로 느껴야 하는 통합적 몸과 마음의 서사이다. 그러나 춤의 기본 동작을 위해 발을 떼지 않고 움직여 보거나 앞뒤로만 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보도록 하고,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을 해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몰입 내지는 풍부한 미적체험을 위한 기본·기초 활동이다. 연령 별 구분 역시 오랜 현장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대표적인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결국 세부내용의 분화가 내용지식이 되는 문제이다. 개념의 습득을 논리적 사고 과정의 수준에서 강조하느냐 실제 생활과 관련시켜 놀이 등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학습 방법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 수석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군무진 (corps de ballet)과 솔리스트를 거쳐야 한다. 무대를 영혼과 교감하며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 여럿이 한 몸처럼 기계처럼 추는 춤을 거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의 비구니 대학에서 1학년은 청소를, 2학년은 농사, 3학년은 밥짓기, 4학년은 경전만 읽어도 된다고 한다. 최고의 전문가는 무수한 연습과 구조에 익숙해야 하고 고도의 창의성도 갑자기 나오는 생각만이 아니라 오래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구조화된 훈련에서 자신의 경험과 풍요로운 감정에 몰입하도록 허용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나. 기존에 개발된 활동을 거의 폐기하고 단위활동의 내용과 교수방법이 치열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늘 새로운 활동계획안을 만들어 시급히 개발되었는가?

기존 활동과 주제는 같으나 활동의 소재나 학습 자료가 달라 모두 새로운 활동만 개발하여 제시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활동 외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요구도 있다. 기존의 활동에 새로운 활동을 더해 질 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풍부해지고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 교육과정 개정과 현장에 지도서를 보급할 때 대학 및 현장전문가가 등 여러 집단이 협력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상 한계가 있다. 과거의 교육과정 편수실처럼 국가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부서나 담당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히려 여력이 있다면 똑같은 올챙이 기르기, 목걸이 만들기, 배 만들거나 우주 꾸미기 활동이라도 발달 및 수준에 따라 그 절차의 세분화와 강조점이 다르므로 같은 활동을 연령별로 구체화해 보는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라도 좀 더 다양한 자료나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사의 창의적 활동 개발 능력을 함양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색함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자기표현을 가르친다는 것이 자기주장만 가르친 것은 아닌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활동이 규칙과 질서를 등한시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심미안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고민과 사색이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진희(2016)는 좋은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을 들면서 Walsh의 ‘교육과정은 소박하여야 한다.’를 인용하여 교육과정이 표준화되면 될수록 많이 그러나 알게 가르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자율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진지하게 몰입하여 깊이 있게 배울 때 가장 잘 학습한다는 것이지 교육과정을 허술하게 만들거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IV. 결론

유아중심이라고 하는 개념도 교육활동의 유형과 교육환경에 따라 그 정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다. 유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하루일과를 계획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유아의 흥미와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교사에 의해 준비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제경숙(1996)에 의하면 활동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주제선정에 관한 차이 이외에는 단원접근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프로젝트 접근법 또한 전통적인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병행가능하다고 하였다. 결국 어떤 특징을 강조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 편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교사의 선호, 학급 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사의 역할로서 유아와 대화를 나누고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사고를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측면이다.

국가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늘 있어왔다. (김영옥, 조부경, 홍혜경, 김희진, 2005; 나정, 조준오, 2016; 박찬옥, 정미라, 김영옥, 1997; 박창현, 양미선, 2017) 현장에 필요한 자료 개발 요구, 연령별 구분에 대한 요구, 해설서에 따라 길잡이가 될 지침에 대한 요구 등이다. 이전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인간 활동의 동기나 이유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통찰력으로 바라본다면, 항상 과거의 교육과정은 지나간 시대의 사유양식이나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신호등이 없을 때 좌우를 살피며 길을 건넌 자를 신호등이 세워진 후의 차로 재어 보면 미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확장되고 풍부해진 사고의 차로 재어보고 견주어보는 일은 필수적이며 우리의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풍부한 담론이 학문에 기여하는 것과 약 5만 유아교육기관(유치원 8,801, 어린이집 40,238), 29만 유아교사(유치원 52,923, 어린이집 235,704)와 215만(유치원 704,138, 어린이집 1,450,243)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 실천과 같을 수는 없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성세대에 이미 상식화된 내용이면 충분하지 학술논쟁의 최첨단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이인호, 조선일보 2016.12.3.

A30.)는 제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

20세기 초 프로젝트 접근법, 그리고 Dewey의 진보주의나 Piaget의 인지 발달론이 접목되어 등장한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주창자들에 의한 재개념화에 이르기까지 유아중심은 텍스트와 읽기, 발달과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 철학적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 중심이 아니었으므로 누리과정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과 환경에 어울리는 것으로 다듬고 나아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유아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른 인식과 이해 그리고 교사가 전통적 역할에 사로잡혀있지 않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지침서.
- 김영옥 (2012.10.18.). 유치원에서의 누리과정 운영 질적 수준 제고 방향(주제발표1). 육아정책연구소 「제3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pp. 1-9). 서울:상공회의소.
- 김영옥, 조부경, 홍혜경, 김희진 (2005).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유아교육연구*, 25(4), 53-80.
- 김은영, 강은진, 엄혜경 (200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연구보고 2017-26). 육아정책연구소.
- 나정, 조준오 (2016). 유아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은유(metaphor)해석. *육아정책연구*, 10(3), 173-205.
- 박찬옥, 정미라, 김영옥 (1997).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연구 보고서*.
- 박창현, 양미선 (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1(1), 209-237.
-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다양화 방안. 육

아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교육학대백과사전 제2권**. 하우동설.

양옥승 (2005).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탐구. **유아교육연구**, 25(2), 103-117.

오채선 (2018.04.26.). ‘자율성으로 본 유아교육과정 재설계’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예측불가능한 미래사회와 유아교육과정재설계 I」 주제강연 II, 67-116, 가천대학교.

이진희 (2016.10.19.). 교육의 본질로서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유아교육과정 상상하기(토론).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유아교육과 상상력 간의 대화: 유아교육에서 상상력에 대한 재조명과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부연 (2018). ‘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안녕하세요**, 44, 1-3.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경숙 (1996). 아동중심교육철학과 유아교육과정. **교육이론과 실천**, 6(1), 57-69.